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900 곳 이상 장소에서 대테러 합동 훈련을 완성했음을 발표

“안보작전(Operation Safeguard)”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기 신고한 기업체, 소매점, 단체 및 일반 대중을 장려하여 보안을 강화

주지사, 봄비는 휴일 시즌에 쇼핑에 나선 대중들에 주변 경계를 권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에서 의심 행동 보고 프로그램과 대테러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7년에 주 전역의 기업체와 단체의 900 곳 이상의 장소에서 “안보작전(Operation Safeguard)” 대테러 훈련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점검한 장소보다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대테러 훈련은 일반대중이 우리주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뉴욕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법 집행기관에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2015년에 파리와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응하여 **Cuomo** 주지사는 2016년 시정연설(2016 State of the State)에서 주 전역의 기업체들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별하는 능력을 키워 즉시 보고할 수 있게 훈련 횟수를 늘릴 것을 대테러실에 지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0 여 개의 트럭 대여 장소와 북부의 5 개 공항을 포함한 900 개 이상의 장소에 100 개 가까운 법 집행기관과 350 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기타 장소에는 철물점, 총기 소매점, 대형 소매점, 화학약품 혹은 자체제작 폭발 장치에 사용하는 구성품을 판매하는 기업체, 병원, 대학 및 학원, 운송시설, 대형 수구소 및 기타 테러 공격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모든 장소에서 법 집행 요원들이 다양한 화약품과 자체 제작한 폭발장치에 사용하는 구성품에 대한 수색과 같은 “의심 활동”에 관련한 보안 프로토콜을 점검하여 기업체가 범죄행위를 감별하고 그것을 보고하였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각각의 방문 후에는, 국토안보부, 연방, 주 및 지방 협력기관들이 성공적인 조치와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각각의 장소에서 접하게 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의심 활동들은 제때에 정확하게 신고되었으며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팀원들의 후속 교육이 잘 받아들여졌고, 확인 방문을 통하여 이런 의심 활동들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법 집행기관에 보고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커미셔너 Roger L. Parrino, S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맞지 않은 이상한 패턴과 활동에 대해 반드시 시간을 내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년 365 일의 하루하루가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경계태세가 늦춰지고 모두가 시준 준비에 정신없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항상 경계하십시오. 자신의 직감을 믿으시고 무언가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 경찰청(State Police)의 George P. Beach II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집행기관과 긴급상황 대응부서는 매일 훈련과 보안 작업을 통하여 우리 커뮤니티에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중들이 우리를 도와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테러공격과 맞설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경각성을 높여 방심하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여 모든 이상한 점을 보고할 것을 바랍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귀하가 공유한 정보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올버니 지부에서 활동하는 특수요원 Vadim D. Thomas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과 우리 지역사회가 테러 관련 활동과 연관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반 공중이 제공한 정보가 범죄자를 식별하고, 범죄 활동의 차단으로 귀결되는 수많은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반 공중을 교육하고, 행동 절차를 점검할수록, 우리 지역사회는 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반 공중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일체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연방보안국 책임자, 운송안보행정관 Bart R. Johns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우리는 'See Something, Say Somet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심 활동을 발견한 후 보고하는 훈련인 ‘안보작전’을 진행하는 뉴욕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뉴욕시민이 공항과 같은 중요한 장소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주 경찰서장 협회(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의 이사장 Margaret Ry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과 우리 지역사회가 잠재적인 테러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및 사업체 파트너들과 일심동체로 협력하는 것은 모두가 ‘See Something, Say

Something(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리기) 및 ‘See Something, Send Something(무언가를 발견하면 문자 보내기)’의 일원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의심 활동은 누구나 항상 보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안관협회(New York State Sheriffs' Association)의 이사장 Peter R. Keho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뉴욕의 대테러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반 대중들의 수천 쌍 눈과 귀가 제한된 법 집행기관 요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대중들이 ‘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려주는(See Something, Say Something)’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든지 1-866-SAFE-NYS(1-866-723-3697)로 전화하거나, [SeeSend](#)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진이나 문자를 보냄으로써 뉴욕주 테러정보망(Terrorism Tips Line)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는 방법과 아울러, 우리 주의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 보려면 [Safeguard New York](#) 을 방문하세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한 경계심을 갖춘 한 명의 시민이나 한 기업의 직원이 신고한 한 통의 전화가 진행 중인 테러 음모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테러실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대테러 실](#)은 연방, 주, 지방, 부락 및 민간 부문이 테러 활동과 위협에 대한 예방과 준비 및 보호 노력을 지원합니다. 대테러실은 법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뉴욕주 경찰 및 그 밖의 법 집행기관 및 공공 안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부](#)와 산하의 네 개 기관, 즉 대테러실, 비상관리실(Emergency Management), 화재 예방통제실(Fire Prevention and Control) 및 합동작전 및 비상통신실(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은 테러와 기타 인재와 천재, 협박,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에 대한 예방, 보호, 준비, 대처 및 복구 노력에 리더십, 공조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방문, [@NYS 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